

“요직에 자기사람 심기…체육회 사유화”

두얼굴의 광주시체육회장

<하> 말바꾸기에 신뢰 실추

김창준 광주시체육회장의 자기부정 행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1월 취임사에서 “첫 민선 체육회장 체제는 ‘체육인에 의한, 체육인의 체육회’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며 “재정 자립에 최선을 다하고, 엘리트 체육을 넘어 광주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체육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체육회를 이끌어갈 인사 구성은 사뭇 달랐다. 탕평·화합 인사를 표방했던 것과는 달리 김 회장 측근 인사들을 요직에 앉혔기 때문이다. 이들 위원회를 꾸렸을 때 체육인들은 “선거후 논공행상을 하는 관선보다 나를 것 없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체육회 위원회 가운데 노르자위원 상임위원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대표적이다. 상임위원회는 전체 위원 10명 가운데 당연직 위원(광주시 문화체육관광

탕평인사 약속 안지켜…상임위·공정위에 측근 다수 포진

광주시 눈치보며 사무처장 공석 4개월째 방치 리더십 실종

장·광주시교육청 체육문화복지과장)을 제외한 8명(위원장 포함)을 김 회장이 임명했다. 상임위는 이사회 자문기구지만, 심의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이사의 결정권을 넘어서는 파위를 갖고 있다. 심의 대상도 체육회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육회 및 종목단체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등으로 체육회를 좌지우지하는 기구다. 스포츠 공정위도 당연직을 제외한 전체 11명 위원 대부분이 김 회장이 낙점한 인물이다. 스포츠공정위도 체육 관련자 징계, 체육회 관계단체 임원후보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 및 구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임원 심의 등을 다룬다.

이들 위원회는 최근 체육회장 출연금을 6억원(3년)에서 2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규정 개정을 실행, 시민 반발을 자초

했다. 시체육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공적인 역할을 망각하고 패거리, 친목·동호단체처럼 의사결정을 하는 행태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조만간 위원회에서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육인들은 김 회장이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민의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 회장은 지난 1월 체육회장 선거에서 147표를 받아 전갑수 후보를 10표차로 누르고 국선 끝에 당선됐다. 당시 ‘김 회장의 중량감으로 미뤄 전갑수 후보에게 사실상 패배한 선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광주시생활체육회 회장, 광주시체육회 상임고문 등 30년 동안 광주 체육계에서 활동해온 경력으로 비춰 너무도 초라한 결과였다. 그만큼 체육계의 민심이 싸늘했다.

체육인 B씨는 “반대 표심을 아우르는 포용을 실천해야 할 회장이 사실상 체육

회를 사유화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김 회장을 반대했던 유권자들이 우려한 대목이 바로 현실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 회장의 리더십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취임 4개월 여 동안 사무처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는 등 체육회 조직을 방치하고 있다. 사무처장은 체육회 운영 등 실무를 책임지는 중핵임에도 현재까지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는 민선 체육회로서 위상을 찾기 못하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관선 체제와 달리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할 민선체육회장이 광주시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체육회 주변에서는 ‘광주에서 사무처장을 낙점해주길 기다리고 있다’는 설이 파다하다.

체육인 C씨는 “출범 초기부터 관선의 적폐를 되풀이 하고 있는 광주시체육회에 언제까지 광주체육의 미래를 맡겨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코로나19’ 수도권 대규모 유행 우려…“방역 위해 일상 일부분 양보해야”

종교·학원 등 통해 빠르게 전파

3차 등교 관련 상황 오늘 발표

최근 수도권 교회 소모임 등을 고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대규모 유행’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방역 강화 및 방역 수칙의 철저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수도권에서 종교 소모임, 사업장, 학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되는 양상”이라면서 “이태원 클럽과 부천 물류센터 등에서 촉발된 지역사회 감염이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해 연쇄적으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어 역학조사의 속도가 이를 따라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인구 밀집도가 높고 유동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확산세가 계속돼 밀접한 공간에서 감염 전파가 이뤄질 경우 대규모 유행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손 반장은 이어 국민 개개인이 일상에서 손씻기,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하면서 “지금은 방역을 위해 일상의 일정 부분을 양보해야 하는 시기다. 이 순간들이 앞으로 생활방역 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요 사업장을 향해서는 “이제 사업장을 운영할 때 방역은 기본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해달라”며 “방역 수칙을 지키는 데 드는 비용은 직원과 사업장을 지

키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고 언급했다.

손 반장은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학원이 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학원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했기에 학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오늘 회의에서) 논의됐다”며 “3차 등교와 관련한 상황과 함께 학원

관련 부분도 내일쯤 총괄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며칠 새 확진자가 속출한 인천 개척 교회의 경우 관련 환자의 상당수가 확진 당시 특별한 증상이 없는 이른바 ‘무증상’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수치 달아주는 문 대통령 문재인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도균 수도방위사령관의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은 후 삼정검(三精劍)에 수치(綬指)를 달아 주고 있다. 수치는 끈으로 된 깃발로 장성의 보직과 이름, 임명 날짜, 수여 당시 대통령 이름이 수놓아져 있다. /연합뉴스

“해남 75차례 연속 지진, 대규모 전조 아냐”

기상청, 지진전문가 회의…국내 발생 일반적 특성

최근 해남에서 연속으로 발생한 지진은 대규모 지진의 전조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상청은 2일 ‘지진전문가’ 회의를 열어 지난 4월 해남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연이어 발생한 지진의 원인과 향후 예측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남지역에선 지난 4월 26일 이후 약 한 달간 75차례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달 9일 이후 한동안 조용하다가 같은 달 23일 규모 1.4의 지진이 추가 발생했다.

기상청은 초기 분석 당시 직경 1.2km 내에 분포한 것으로 파악했던 진앙의 위치가 정밀분석 결과 약 500m의 작은 범위에 밀집해 분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깊이 20km 부근에서 동남동-서북서 방향으로 지진 발생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했다.

규모 2.0 이상 지진의 경우 동남동-서북서 또는 북북동-남남서 방향으로 수평 이동하는 성분이 발달한 ‘주향이동 단층 운동’이 나타났는데 이는 한반도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지진의 특성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기상청은 또 공식적으로 발표된 75회의 연속지진과는 별개로 매우 작은 지진이 수백회까지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방출된 전체 에너지의 3% 이내로 작아서 지진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날 회의에서 해남 지진의 발생 원인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한반도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현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해남지역 연속

지진이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지진의 발생 깊이(5~15km)보다 다소 깊은 20km 부근 지점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주변 지역의 지각 두께 변화, 주변과 다른 온도 조건, 구성물질 등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통상적인 지진 발생체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해남지역 발생 지진에 대한 현재까지의 종합 관측과 분석 결과로 볼 때 이를 대규모 지진의 전조로 보기에는 성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진 발생 위치가 좁은 범위에 분포해 단층의 크기 자체가 크지 않은데다 앞서 2013년 보령해역이나 2019년 백령도 주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으나 대규모 지진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또 이번 사례와 같이 지하 20km 깊이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표면까지 전달되는 에너지가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국민이 우려하는 수준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지진이 발생한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하부단층구조를 파악하는 연구와 함께 단기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진 체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해남지역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24시간 365일 지진감시·통보체계 가동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동시에 보다 명확한 발생원인 규명을 위해 중·장기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 TF’ 띄웠다

추진전략·유치방안 첫 회의…송상락 단장 등 14명 참석

여권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움직임에 맞물려 전남도가 숙원 해결을 위해 ‘전남도 의대 유치 TF(특별팀)’을 띄웠다.

전남도는 2일 오후 3대 혁신과제에 중 하나인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송상락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는 도내 의과대학 추진전략과 유치방안 등을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목포대·순천대 의과대 유치 추진단장과 대학교수, 전문가, 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TF는 앞으로 의대 유치 자문활동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도민 유치추진위원회와 함께 국회 정책포럼, 범도민 서명운동 등 대대적인 유치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상락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전남도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지난 30년간 정부

와 국회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도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다”며 “올해 도내 의과대학 유치를 전남 핵심과제로 삼은 만큼 지역 역량을 끌어 모아 중앙부처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의 의대 유치 노력은 지난 1990년 3월 목포대가 정부에 ‘의대 신설 건의문’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30년 이상 이어졌다. 그런데도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광역단체다. 민선 7기 들어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관계기관 등에 의과대 유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10여 차례 이상 건의서를 제출했다.

최근 목포대·순천대와 목포시·순천시, 전남도가 의과대학 유치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의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풍수·시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 과정)

- 일시 : 2020. 6. 23(화) 오후7시
- 장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 풍수+시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시 : 2020. 6. 16(화) 오후7시.
- 장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상 : 누구나 (선착순〇〇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암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대출·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채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기적의 침술

현대의학으로 잘못고치는 병

고혈압, 당뇨병, 중풍마비
불치의 통증, 남녀성욕감퇴

고대의술침침을 한번만 맛으면
단한번 치료로
모든 병을 고칩니다.

부산 010-8491-2060

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자연씨코퍼레이션 주식회사(사내이사 이선주("甲")와 주남전기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선주("乙"))은 각각 시기 2020년 6월 1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하고 그 결과로 자연씨코퍼레이션 주식회사는 주남전기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자연씨코퍼레이션 주식회사는 존속하며 주남전기 주식회사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며, 본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재권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공고 게시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계신 주주께서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까지내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3일
"甲" 자연씨코퍼레이션 주식회사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로152번길 4-48
사내이사 이선주
"乙" 주남전기 주식회사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로152번길 4-48
대표이사 이선주

강진군 공고제2020-453호

빈집 철거명령 공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소규모주택정비법) 제11조(빈집의 철거)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3.
강진군수

1.제 목: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 공고
2.법적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3.공고기간: 2020. 6. 3. ~ 2020. 8. 2.
4.철거명령 대상

소유자 (이해관계인)	건물소재지	건축물면적 (연면적)	처분원인	처분내용	비고
미상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108-53	19.43㎡ 정도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 장애	빈집명령	건축물대장 없음

5.기타사항
가. 위 건축물은 방치된 빈집으로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있으므로 2020. 8. 2까지 철거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 강진군 제무과(☎ 061-430-34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의 함께 걸음은 길 68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광교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행구독 220-0550

산행안내

6월3일(수)

▲광주청록산악회 6월3일(수) 전남 신안 비금도 선왕산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앞 06:00, 교직원공제회관 06:10, 예술회관후문 06:20, 각화동 현대물류앞 06:3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6월6일(토)

▲광주금당산악회 6월6일(토) 여수 낭도 상산 해안트레킹, 봉선동롯데마트앞 07:10 진월동식자재마트앞 07:20 영주체육관 07:30 한국병원앞 07:40 문예회관정문 07:50 비엔날레주차장입구 08:0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6월10일(수)

▲광주청록산악회 6월10일(수) 충북 제천 동산-작성산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앞 06:30, 교직원공제회관 06:40, 예술회관후문 06:50, 각화동 현대물류앞 07:0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6월17일(수)

▲광주청록산악회 6월17일(수) 경남 거창 우두산-의상봉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앞 07:30, 교직원공제회관 07:40, 예술회관후문 07:50, 각화동 현대물류앞 08:0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6월20일(토)

▲광주금당산악회 6월20일(토) 통영 한려수도 비진도 외산 선유봉, 봉선동롯데마트앞 07:10 진월동식자재마트앞 07:20 영주체육관 07:30 한국병원앞 07:40 문예회관정문 07:50 비엔날레주차장입구 08:0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